

Youngeun News

동행

4월

2023년 440호



소리와 소음

소리와 소음의 차이는?



소리와 소음의 차이는

‘듣는 사람’이

‘듣기에 좋은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전도서 5:2)

〈글 | 서현이 기자〉

영은교회 창립 주후 1960. 04. 24



월간 동행 영은 홍보부

1984년 4월 27일 창간

발행일 제440호 / 2023. 4. 2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61 영은교회

전화. 02-2676-7171~2

월간 동행 E-mail. yemagazine@naver.com

발행인 이승구 목사

지도목사 최광주 목사

편집인 김광일 장로

편집장 구자민 안수집사

서선이 권사

팀장 김창원 집사

편집 서선이 김경원B 김은숙A

기자 김명희C 서현이 이숙경

사진기자 허영준

디자인 디자인 샘

월간 동행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 소식지입니다.

2023년 「월간 동행」 사역자 모집

살롱!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생생한 글과 사진으로
남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월간 동행과 함께 동역하실
사역자를 기다립니다.

CONTENTS

02 그림이 있는 풍경

소리와 소음 / 서현이 기자

04 생명의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 이승구 담임목사

07 믿고 알고 알고 믿고

영성이란 무엇인가 / 신요한 목사

08 동행

강해설교와 사순절 소시지 사건 / 김명희 기자

10 웹진 동행

권사라서 참 좋다! / 박수기 권사

이른 봄 나들이 / 구현진 통신원

중보 기도자 학교 제3기 훈련을 시작하며 / 오남숙 통신원

30년 전의 기억 / 구자민 안수집사(동행 편집장)

제62기 전도폭발훈련 개강 / 박은희 통신원

영은교회 여전도회 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세계기도일 예배 /

최은애 통신원

18 선교지에서 온 편지

인도하심 / 신국진·안윤정 선교사

디모데 펠리십 교회 건축 이야기(2) / 신국진·안윤정 선교사

22 부활절

부활절,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 이준희 목사

20 교회안내

「월간 동행」에서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영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거나 알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월간 동행 이메일(yemagazine@naver.com)로 사진과 함께
보내주세요.

편집회의 검토한 후 월간 동행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11~18)



글 | 이승구 담임목사

선한 목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희생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요10:11)”

팔레스타인의 유목민들에게 있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실로 생명적 결탁의 관계였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위하여 ‘양의 우리’를 준비합니다. 이동 시에는 목자와 양이 함께 들판에서 야숙을 하는 임시 우리를 만듭니다.

어떤 경우는 돌로 벽을 쌓아 양들을 보호하는 요새를 만들고, 비바람을 피하기 위하여 지붕을 덮었습니다. 아침이면 목자는 문 곁에 서서 양의 수를 헤아려 점검하고, 저녁이 되어 우리로 돌아와서는 다시 문 곁에 서서 양의 수를 한 마리 한 마리 확인합니다. 수가 모자랄 때 목자는 길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이러한 돌봄은 직업의식만으로는 어려운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자신의 위험이나 고통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아픈 양, 병든 양, 잃어버린 양만 생각합니다. 목자는 자신의 일하는 시간,

땀 흘린 노동의 대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관심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양의 우리에 있고, 그의 전 삶의 재능과 힘이 양의 목장에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희생적 사랑으로 양들을 돌봅니다. 이런 선한 목자는 샅꾼과 대조됩니다.

“샅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요10:12)”

품꾼의 관심은 오직 자신이 받아야 할 품삯에 있습니다. 품꾼은 양을 잃어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이리떼가 공격하면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양들을 두고 홀로 도망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의 안전을 위해 이리떼와 끝까지 싸우고 때로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양에 대한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남원이 낳은 유명한 화가 김병중은 『바보 예수』라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림에 늘 한 방울의 눈물을 그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다른 어떤 신의 이름도 들어보

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뿐 아니라 자신을 미워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김병중 화백은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지나치게 똑똑합니다. 계산적이어서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습니다. 조건을 보고 사랑하고, 보상이 있어야 희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과 헌신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셔서 바보와 같이 사셨던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바보 같은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② 선한 목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요10:14~15)

여기서의 ‘알’은 양의 이름은 물론 양의 특징과 형편을 잘 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관계의 모델이 바로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자 예수님

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아들의 순종이었듯이, 목숨을 버린 목자의 사랑과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양의 순종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요10:17~18)”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결코 대적자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죽음의 키스가 필요 없을 만큼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체를 밝히십니다. 체포를 스스로 요구하며 대신 자기 양들인 제자들을 놓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계명인 줄 알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기로 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권한임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요10:18)”

‘권세’는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드러나는 신적

권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라 버릴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가 모두 예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역이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있지만, 철저히 자발적 선택을 통한 순종임을 강조합니다. 표면적으로 그의 죽음은 종교지도자들이 잡아 죽인 결과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선택하고 그 길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릴 권세인 십자가와 다신 얻을 권세인 부활을 통해 현재 자기를 믿는 사람들과 이후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를 통해 풍성한 삶을 주는 선한 목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1~2)”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양인 우리가 목자의 제물로 드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

배’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달리 번역하면, ‘합당한’입니다.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 감사, 순종, 경배,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와 신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 결합된 삶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면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자발적으로 순종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복음에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원하여 십자가 형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뿐이십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바보와 같이 사셨던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자발적으로 순종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길 기도합니다. **복음**



글 | 신요한 목사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신앙을 논할 때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누군가 나에게 ‘영성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영성을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영성은 그런 의미로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성’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1. 영성과 신학

영성이란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된 것은 불과 30여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영성이라고 부르는 바를 표현하는 단어는 ‘신학’이란 말이었습니다. 신학은 본래 단순히 지식을 추구하는 활동이 아니었고, 자기 실존의 변화를 추구하는 영적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과 지식이 발달하면서 이 신학을 ‘학문’과 ‘영성(경건)’으로 나누어 표현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신학은 이성적인 탐구인 학문보다는 구도(求道)적 삶과 영적 체험이 주를 이루었지만, 점점 더 지성에 경도되어 이성화(rationalization)되어 갔고, 영성은 신학의 중심부에서 점점 밀려나며 그 의미도 약간 축약되어 버린 것입니다.


2. 보편적 영성

현재 신학계에서 많이 회자되는 영성에 대한 정의는 샌드라 쉬나이더스의 다음과 같은 정의입니다. ‘영

성이란 궁극적 가치를 향한 자기 초월을 통해 온전한 영성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여정이요 그 길을 걷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성은 꼭 종교적일 필요는 없고, 한 인간이 자기를 넘어서 무엇을 추구하는 길을 걸어갈 때, 참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 중에 있을 때, 영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기독교를 넘어선, 보편적인 영성의 개념이 통용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3. 기독교 영성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러한 영성의 ‘추구하는 여정’이란 속성을 ‘관계성’에서 찾으려 합니다. 서로 관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인간도 관계함으로 참 존재에 다가갑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이웃과 관계하며, 자연과도 관계하고, 나 자신과 관계하는, 그러한 관계가 꺾이는 삶이 인간의 존재다운 삶이며,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 자연과 나 자신에게로 다가가 기도와 예배 등의 방법으로 그것을 추구하며 더 친밀해지려는 여정, 그런 체험의 삶이 바로 기독교 영성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짧은 글로 영성의 모든 의미를 담아낼 수는 없지만, 영성의 삶으로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내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영성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해설교와 사순절 소시지 사건



글 | 김명희 기자

츠빙글리는 1518년에 스위스 취리히 제1의 교회인 그로스뮌스터 교회의 주임 목회자로 청빙을 받았다. 12월 27일에 취리히에 도착한 츠빙글리는 자신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강해 설교였다. ‘원천으로 돌아가자’ (ad fontes)란 표어 아래 시작된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 (sola scriptura)에서 그 길을 찾았다. 종교개혁가 루터나 츠빙글리는 당시 타락의 온상이었던 교회를 바로잡을 유일한 답이 ‘오직 성경’에 있다고 확신했다. 교회도 교황도, 성인도 성물도 아닌, 오직 성경만이 믿음의 근거라고 여겼다. 츠빙글리는 믿음은 오직 성경 말씀을 듣고 연구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로스뮌스터교회의 첫 사역으로 ‘강해설교’를 시작했다.



율리히 츠빙글리(1484~1531)

츠빙글리, 강해설교의 전통을 세우다

예배 설교학자인 주승중 목사(현: 주안장로교회, 구: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강해설교란, “성경으로부터 신실하게 메시지를 받아서, 그 메시지를 현대의 청중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설교”라고 정의한다. 강해설교는 삶의 장에서 발견된 주제를 선택하고 거기에 맞는 성경 본문을 찾아 전개해 나가는 주제설교나, 짧은 본문을 사용하며, 성경 본문을 나열식으로 주석해 가는 본문설교와는 다른 설교다. 주승중 목사는 메릴 영거의 말을 인용해, “강해설교는 성경에 관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강해설교는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는 성경 중심적 설교를 뜻한다. 독일의 종교개혁가 루터도 ‘성경이 성경으로 말하게 하라’며, ‘성경 자체의 자기 해석’ (scriptura sui ipsius interpret)을 주장했다.

츠빙글리는 그로스뮌스터교회에 부임하던 해에 마태복음에 대한 연속적 강해 설교(lectio continua)를 시작했다. 교인들이 강해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되돌아볼 수 있게 했다. 츠빙글리는 미리 지정된 복음서와 서신서 본문들을 따르던 당시의 관습(lectio selecta)에서 크게 벗어나, 본문을 자유롭게 정해 설교를 했다. 그는 한 권의 성경을 택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설교했고, 이러한 강해설교는 성경 전체로 확대됐다. 그는 4년 만에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신약성경 전체를 강해하였으며, 주중 예배에서는 시편을 설교했다.

츠빙글리의 강해설교 목표는 “원천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설교하며 청중들의 가슴 속에 순전한 그리스도를 집어

놓는 것”이었다. 그는 성경으로부터 입증될 수 있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설교하지 않았다. 성경만이 기독교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규범이라고 믿었다. 츠빙글리는 성경 전체에서 분리된 부분적인 본문이 아닌, 성경 전체를 강해했다. 마침내 그는 설교를 통해 취리히에서 유명 인사가 됐다. 사람들은 “그런 설교는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다.”라며 칭송했다. 사제와 수도사들의 지루한 설교에 신물이 났던 저명한 두 시민은 츠빙글리의 첫 번째 설교를 들은 후,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진리의 설교자이며, 사람들을 속박에서 해방시킬 모세와 같은 인물이다.”라며 공언했다.



스위스 취리히 그로스뮌스터교회
(츠빙글리의 첫 주임목회 교회)

츠빙글리는 강해 설교를 통해 기존의 설교와는 다른 새로운 설교전통을 세우게 됐다. 이것은 개혁교회의 중요한 전통이 됐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강해 설교를 종종 들을 수 있다. 요즘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마가복음 강해’도 그중 하나다.

사순절 소시지 사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다

츠빙글리가 스위스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522년 사순절 기간에 발생했던 ‘소시지 사건’ 때문이다. 중세 가톨릭교회에서는 사순절 동안에는 육식을 금했다. 그런데 츠빙글리는 사순절 기간 육식 금지는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설교를 했다. 이 설교를 들은 츠빙글리의 몇몇 친구들은 모여서 소시지를 먹었다.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를 먹었다는 것은 사순절의 육식 금지 전통을 깨는 행위였다. 이것은 교회 내 큰 분란을 가져왔다. 로마교회에서는 사순절 금식 규례를 어긴 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콘스탄츠 주교도 취리히로 사절단을 보내 관습적인 금식을 준수해야 함을 촉구했다.

츠빙글리는 소책자(1522.4.16. 발행)에서 사순절에 육식을 금하는 것은 아무런 성서적 근거가 없으며, 하나님 이 주신 음식은 무엇이든 먹을 자유가 있다고 변호했다. 그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취하거나 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교회는 이러한 자유를 금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했다. 그의 이런 주장은 바울의 견해에 근거했다(고전 8:8; 10:25; 골 2:16; 딤후 4:1; 롬 14:1~3; 15:1~2). 츠빙글리는 ‘사순절 육식 금지’에 대한 강력한 반대로 위협에 처하게 됐다. 루터가 95개 논제 발표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면, 츠빙글리는 육식 금식 논쟁으로 암살 위기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잃지 않고, 승리를 확신했다. 사순절 소시지 사건은 오히려 츠빙글리가 종교개혁을 목표로 67개 조항의 논제를 작성하게 된 출발점이 됐다.



권사라서 참 좋다!

- 권사회 봄 수련회를 마치고 -




글 | 박수기 권사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엄중한 시절에 권사에 임직되어 권사회 수련회는 3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3월 7일 화요일 오전 10:10 분에 찬양으로 시작하여 오후 4시에 기도회로 마치는 일정이 체력적으로 무리가 될 거라 예상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주최 측의 진행 과정은 지혜롭고 순조로웠다. 정성스럽게 끓인 따뜻한 대추차와 달콤한 과일과 맛있는 떡과 과자는 휴식시간을 즐겁게 해주었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 주어 피로를 씻기에 충분했다.

권사회 담당 교역자인 이준희 목사님의 특강은 유쾌하고 유익하여 한순간도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내가 권사라서 참 좋다(하나님 관점). 나는 내가 권사라서 참 좋다(나의 관점).” 이 주제의 말씀은 나의 권사로서 삶의 좌우명이 될 거 같다. 김슬미 청년과 함께한 레크레이션은 한 시간이 짧게 느껴졌다. 진행자와 우리는 하나가 되어 미리 연습하고 준비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즐거웠다. 권사님들의 수준에 딱 맞는 율동과 게임을 준비한 슬미 청년의 지혜가 돋보였고, 매 순간 집중하고 참여하는 권사님들의 열정이 빛나는 시간이었다.

라명옥 권사님의 권면의 시간은 숙연하기까지 했다. 선배 권사님들의 무릎 꿇은 기도와 헌신과 섬김이 지금의 영은교회가 든든히 서는 주춧돌이 되었음을 알게 하였고, 그 뒤를 이어갈 우리 권사들의 책임이 막중함을 일깨워 주셨다. 라 권사님의 권면 속에는 후

배 권사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스며있음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이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기도회를 마친 후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다. 임원들이 준비한 장미꽃 증정식이다. 권사회 회장 이숙영 권사님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을 위로하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셨다. 임원들은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쁘게 포장된 장미꽃 한 송이씩 건네주셨다. 꽃을 받는 순간 감동이 밀려와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개인적으로 올해 봉사부로 식당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상상 이상으로 몸이 힘들고 마음에 부담이 컸던 터라 “많이 힘들었죠?”라는 회장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모든 회원 각자의 상황에 따라 분명 힘든 부분이 있으리라 짐작한다. 작은 꽃 한 송이지만, 거기에 주님의 위로가 담겨 있음을 알기에 모두가 감동하고, 위로받았으리라 확신한다. 



3월 7일 화요일 교회 비전홀(3층)에서 진행된 권사수련회



이른 봄 나들이

- 꿈자람부 -



글 | 구현진 통신원(꿈자람부)

3월 11일 토요일, 이른 봄. 꿈자람부를 섬기는 박선민 전도사와 교사 11명의 야외 모임이 있었다. 이를 축복하듯 햇살이 따스하다. 이렇게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하며 <봄 꿈자람부 Day> 활동 장소로 물색한 장흥 가나아트파크 답사 모임을 떠났다. 전도사님의 지도로 하루 여정을 시작한 우리는 오고 가는 길 위에서 나는 대화로 웃음꽃을 피우고, 토속 한식당에서 맛있는 점심을 나누며 정도 쌓고, 가나아트파크에 전시된 미술품 관람과 함께 사진을 남기며 우리의 추억을 저장했다.

<봄 꿈자람부 Day>에 어린이들과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 가지 활동의 원활한 동선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또 연령별 적당한 활동 거리를 찾고, 또래끼리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꿈자람부 섬김의 자리에서 매주 만나는 우리들이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만나 새로운 것을 함께 계획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베풀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더욱 감사하다. **동행**



情 중에 제일이라는 '밥정'을 쌓는 중



미술품 감상 fr. Mr.Ryu의 작품설명



사진은 조명아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꿈자람부



중보 기도자 학교 제3기 훈련을 시작하며

- 중보기도자학교 -



글 | 오남숙 통신원(중보기도자학교)

중보 기도자 학교 제3기 개강 예배가 3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3층 비전홀에서 있었다. 훈련생 총 37명(현장 31명, 온라인 6명)으로, 개강 예배에 전원이 참석하여 3기 훈련생들의 열의와 각오를 볼 수 있었다.

예배는 강민조 안수집사님의 인도로 시작되었고, 중보 기도자 학교 담당 장로이며 훈련생으로 등록한 강대희 장로님이 기도 인도해 주셨다. 이승구 담임목사님께서 “자랑하고 싶을수록”이란 제목으로 이사야 39:4절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이 성취하고자 하는 걸 얻게 되면,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랑 위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놓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일깨워 주셨다.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자랑하여 그 후손들이 멸하여지고 수치를 당했던(사 39:6,7)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다. 자랑하고 싶을 때 주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만 높이며 자신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함이 우리 중보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또한, 목사님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 상태도 더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힘쓰는 중보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남겼다.

중보 기도자 학교 훈련생 37명은 앞으로 이승구 담임 목사님과 장미애 전도사님이 진행할 8주간의 강의와 기도 실무교육을 잘 이수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영은300기도용사’로 쓰임 받는 날이 곧 오길 기대해 본다.



설교, 이승구 담임목사



찬양으로 예배 준비



글 | 구자민 안수집사(동행 편집장)

30년 전의 기억



설악영은교회 머릿돌에 새겨진 날짜다. 머릿돌에 새겨진 날짜는 설악영은교회의 준공 일을 기점으로 한다.



30년 동안 교회학교와 청년부의 수련회 장소였고, 많은 교인의 기도원으로 이용되었던 설악영은교회가 영은설악센터로 변모하기 위해 철거를 시작하였다. 철거하면서 머릿돌을 기념 보관하기 위해 떼어냈는데 머릿돌 안에서 무언가 감싸진 검은 비닐봉지가 발견되었다.



1993년 머릿돌에 넣어진 '타임캡슐' 이었다. 검은 봉지 안에는 두툼한 서류봉투가 있었고, 그 서류봉투 안에는 1993년 교회수첩과 기도원을 위해 헌금하신 분들의 명단, 건축위원 명단, 건축에 관한 서류, 1993년 지폐 신권 등 그때의 기억들이 코팅되어 잘 보관되어 있었다.



후배를 위한 선배 교인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건축되었던 설악영은교회가 이제 새롭게 영은설악센터로 변모를 시작하였다. 2023년의 우리의 타임캡슐에는 무엇을 넣어 영은의 후배들에게 전달할 것인지 궁금해진다.

모든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여 영은의 후배들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또 한곳의 멋진 장소가 되길 바라면서, 사고 없이 영은설악센터가 잘 완공되길 소망한다.

사진으로 보는 마지막 설악영은교회 모습과 타임캡슐 자료



설악영은교회

1993년 7월 26일 설립

2023년 3월 21일 철거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로 575



머릿돌.
1993. 11. 13.

1. 화제. 10. m. 4m. 10m. 10. 1. 1. = 16116-

1. 1993. 년도 영은교회 수확감판.

1. 1993. 년도 " 전로지 2장.

1. 1993. 11. 7. 주일 구보 한장.

1. 설악영은교회 전축위원 명단.

1. 설악영은교회 기공예배 순서지 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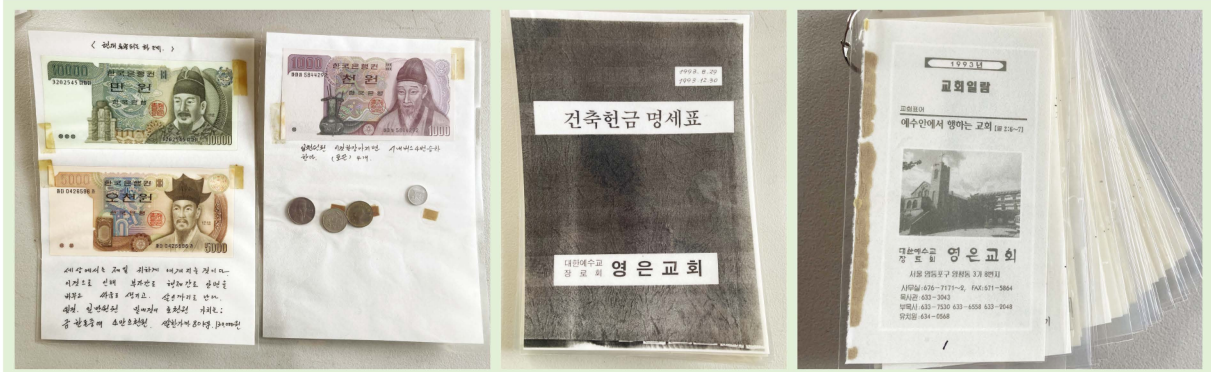
1. 설악영은교회 기공식 ~ 머릿돌 공사까지 약 60% 진행 과정감판 및 전축위원장 사진 10장.

1. 전축현황과. 명단.

1993. 11. 13.

수록책임자 위원장 김항경장로
서기 김찬규장로

설악영은교회 머릿돌 뒤에서
건축 당시 교회 관련
역사적 자료들이 발견되었다.
'타임캡슐'에는
8개의 자료가 보관되어 있었다.





글 | 박은희 통신원(전도폭발훈련)

제62기 전도폭발훈련 개강

제62기 전도폭발훈련 개강예배가 3월 12일 주일 오후 4:30분에 교회 3층 비전홀에서 있었다. 1단계 14명, 2단계 6명, 3단계 4명, 총 24명이 전도폭발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3월 16일 목요일에는 교회 2층 세미나 2실에서 전도폭발 훈련 목요반 첫 수업이 찬양과 기도로 시작됐다. 1단계 훈련은 강사 정성훈 목사, 2단계 훈련은 강사 장진아 권사가 맡아 진행했다. 첫 강의는 뜨겁고 은혜롭게 시작됐다. 특별히 이번 전도폭발 훈련에는 전도부에서 이성창 안수집사가 1단계 훈련에 참여해 큰 힘이 되고 있다.

주일반 첫 수업은 19일 주일 오후 4시 30분 7층 친교 1실에서 진행됐다. 1단계 강사는 한진구 목사, 2단계는 김윤정 집사, 3단계는 진경애 집사, 4단계는 이숙영 권사이며, 특별히 이번 1단계 훈련에 전호성, 이승훈 장로와 김우신 안수집사, 김정원 사모와 아들 한윤호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전도폭발 임원 및 훈련생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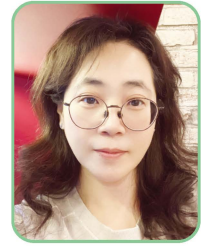
담임 : 이승구 목사	
지도 : 정성훈, 한진구 목사	부장 : 전호성 장로
팀장 : 김윤정 집사	
총무 : 김현철 안수집사	서기 : 박은희 집사
회계 : 송자영 집사	행정 : 이창수 집사

▶1단계 강사 : 목요반 정성훈 목사 / 주일반 한진구 목사
1단계 훈련생 : (목요반) 김경미D 집사 김옥분 집사 이도희 권사 이성창 안수집사 천지영 성도 <5명> (주일반) 광명신 집사 김우신 안수집사 김윤솔 학생 김정원B 사모 김지아A 집사 이승훈 장로 전호성 장로 최윤숙A 집사 한윤호 학생 <9명>
▶2단계 강사 : 목요반 장진아 권사 / 주일반 김윤정 집사
(목요반) 김성주A 집사 최민지 성도 정승은 집사 신예나 성도 <4명> (주일반) 백정란 권사 이민자 집사 <2명>
▶3단계 강사 : 진경애 집사
(주일반) 설소희 집사 신영옥 집사 전정순 집사 최성국 성도 <4명>
▶4단계 강사 : 이숙영 권사
(주일반) 김정희 집사 박성열 집사 박솔기 성도 임소영 안수집사 정광순 권사 <5명>
▶훈련자 및 시범팀
강민조 김복진 김미정 김미향 김은미 김정희 박은희 박현숙 박성렬 백정란 서미영 송자영 심은희 신영옥 윤정희 이민자 이창수 임소영 전정순 정광순 정봉화 조지연 주영경 최정태
▶교사 및 스테프
고미자 이숙영 진경애 윤명희 장진아 김윤정 송도숙 강민조 서상희 김현철 이수선 박은희

제 62 기 전도폭발훈련 개강예배



일시 : 2023년 3월 12일(주일) 오후 4:30
장소 : 영은교회 비전홀



영은교회 여전도회 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세계기도일 예배

글 | 최은애 통신원(여전도협의회)

3월 3일 영등포 중앙교회에서 영은교회 여전도회 협의회 주관으로 세계기도일 예배가 있었다. 세계기도일(World Day Of Prayer)은 전 세계 180여 개국 교회 여성들이 매년 3월 첫째 주 금요일 함께 모여 세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기도해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초교파 여성 기도운동'이다.

한국에서 세계기도일 운동은 1922년경에 시작되었으며, 초창기부터 교파와 국적을 초월하여 여러 교파 여성들과 선교사들이 함께 예배해왔다. 올해 대상 국가는 대만이라서 대만을 상징하는 것들로 제단을 장식하고 대만을 위한 기도를 했다.

이날 세계기도일 예배는 영은교회 주관으로 진행되어서 여전도회 협의회 회장인 주영희 집사가 예배 인도를 맡았고, 각 여전도회 임원들이 대만 여성들을 위한 격려편지와 기도문을 낭독하고 대만을 축복하는 기도로 마쳤다.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행사이고 준비 과정이 복잡해서 걱정되기도 했지만,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준비한 회장과 임원들 덕분에 뜻깊은 예배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다.

전 세계에서 함께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대만을 위해 올린 기도가 대만의 놀라운 부흥의 씨앗이 되길 소망한다. **동행**



세계기도일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협의회 회원들



예배를 마치고 다함께

인도하心

- 인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

글 | 신국진 · 안윤정 선교사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할렐루야. 모든 동역자들에게 2023년 두번째 문안드립니다.

최근 중보의 사람 리즈 하월즈에 관한 책을 다시 읽으며 우리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중보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땅 인도에서의 걸음이 모두 중보의 시간입니다. 저희들 혼자라 아닌 동역자들의 중보가 더해져 교회와 영혼들에게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중보 부탁드립니다.

1. 교회 사역 현장 : 디모데 펠로십 교회 공동체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가꾸어 가고 계심을 매순간 봅니다.

특별히 20개 가량의 주일학교가 각 지역에서 주중과 주말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흥하고 있는 주일학교 사역을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 어린이 전도 협회와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땀과 눈물이 복음의 씨앗되어 많은 아이들에게 꽃피길 기도해 주세요.



어린이전도협회 모임



디모데 주일학교 모습

라니아 교회 이외에도 6개 지역 교회에서 매주일 다양한 언어로 예배와 제자훈련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걷는 한 영혼이 한 지역을 새롭게 함을 보는데 예배와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 교회가 부흥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디모데 펠로십 교회 건축 이야기는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과정에서 어렵고 복잡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걸음 걸음에 하나님의 축복과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토브 공동체 및 자다폴대학교



함께 동역하는 이들을 통해 토브 센터는 아름답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토브 교육 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13명의 믿지 않는 학생들을 만나고, 또 자다폴 대학교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24명의 믿지 않는 학생들을 한국어 과정을 통해 만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벗어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과 접촉점을 갖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한국어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복음의 문이 열리길 기도해 주세요.

3. 가족 소식

저희들 모두 건강합니다.


안식년 후 다시 정착하는 것에 걱정도 많았는데, 오늘의 삶과 순간 순간이 감사한 건 저희들에게 인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역들, 새로운 일들, 성전 건축 등으로 어찌면 바쁘지만 기쁘고 보람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은이는 기숙학교에 잘 적응하여 학업과 생활에 기쁘다고 합니다. 초은이는 언니의 자리가 크지만 엄마 아빠와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내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고 성령 충만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 콜카타에 통합측 후임 선교사님 가족이 들어오셨습니다.

2년간 선임 선교사로 지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는 좋은 동역자로 우리들을 세워주시길 기대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후임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이 잘 세워지도록 중보 부탁드립니다.

4. 두 손 모아 기도해 주세요.

- 1) 디모데 펠로십 교회 건축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건축 이야기에 첨부하였습니다.)
- 2) 새롭게 시작된 토브 교육 센터와 자다폴 대학 사역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해주세요.
- 3) 디모데 펠로십 교회 제자들과 토브 공동체 직원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두 손 모아 기도해주세요.
- 4)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걸음마다 예수의 흔적이 남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 되도록 두 손 모아 기도해주세요.
- 5) 인도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역이 움츠려 들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 나갈 때 열매 맺는 우리들 되게 두 손 모아 기도해주세요. 

디모데 펠로십 교회 건축 이야기 (2)

인도 콜카타 신국진 안윤정

안녕하세요.

인도 정부의 강력한 제재 속에 선교사나 교회들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인도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펠로십 교회도 부흥하며 자립을 위해 노력 중에 있는데 교회를 개척한지 **13년만에 교회 건축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인 현지 동역자들의 결정과 걸음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었는데 교회 건축을 통해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주일 예배후 리더 회의

지난 기도편지에서 디모데 펠로십 라니아 교회를 부목사 수로짓 목사의 집 2층에 교회 목적으로 증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집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허락한 수로짓과 그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교회 건축에 대한 리더들의 결의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 모두의 마음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들의 교회를 세우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교회를 가꾸어가야 한다는게 교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해 리더들이 결의한 모든 부분들을 멈추고 다시 **성도들과 기도하며 토지를 매입하고 교회를 짓되 아이들의 교육도 감당할 수 있는 방과후 교실까지 준비**하자는 의견으로 결의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의 결정보다 더 부담이 되는 상황이지만 먼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주셨고, 이후 많은 성도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 물질과 재능과 중보로 동참하고 있다는게 그저 감사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에 하나님께서 기쁨 부으시리라 믿고 저도, 모든 성도들도 교회 건축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번호 : 신한은행 561-003-49995-710, 신국진**

: 위 계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공식 후원 계좌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의 성함과 함께 '건축'이라 써주세요.

교회 건축을 위해 마음 모아주신 분들

강미순, 김신우, 동해남매, 말씀의 교회, 박은유, 박하엘, 박주형, 배주현, 배준성, 산성교회, 신국진, 오태민, 이경준, 장영희, 채희신,

디모데 성도들의 동참

Ajoy Mondal, Ajit Mondal, Susmita, Immanual, Kishan

◎ 목표 금액 : 3000만원

◎ 현재 후원금액 : 1060만원

◎ 예상 건축 시작일 : 2023년 5월

예상 건축 마감일 : 2023년 12월

교회 건축을 위해 두 손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벽돌 몇 장 후원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저희 디모데 펠로십 성도들에게 큰 힘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1·10·100구좌 후원을 기다립니다.

HAPPY
easter

부활절,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글 | 이준희 목사

‘부활절’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달걀’이다. 어릴 적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욱 부활절은 달걀 먹는 날로 기억될 것이다. 언제부터 부활절에 달걀을 먹게 되었는지에 대해 정확한 근거는 없고 여러 가설들이 있다.

독일 작가 페터 제발트가 쓴 「가톨릭에 관한 상식사전」에 나오는 내용이다.

“달걀은 거의 모든 문화와 종교에서 다산과 부활을 상징한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상징성이 더 강화되었다. 달걀은 훼손되지 않은 껍데기 때문에 죽음을 이겨낸 예수의 부활을 가리킨다.”

이는 “모든 생명은 알에서 나온다.”는 모든 문화와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달걀의 상징성이 기독교 내에 흡수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부활절 달걀은 사순절(부활절 전 40일)과 깊은 관련이 있다. 17세기 수도원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 채소만 먹고, 짐승 고기뿐만 아니라 물고기나 달걀까지도 먹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부활절이 되면 그때 오믈렛이나 반숙된 달걀을 먹었다. 당시 달걀은 매우 귀한 것으로 서민들은 부활절 아침 식사 때에야 비로소 달걀 요리를 먹었다고 한다. 이것이 하나의 부활절 달걀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는 가설이다.

사실 이러저러한 가설을 보지 않더라도 달걀의 형태만으로도 부활과 연관 지을 수 있다. 달걀이 딱딱한 껍질은 예수님이 봉인된 무덤을 상징하며, 달걀을 깨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하지만 달걀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여도 ‘주객’이 ‘전도(主客顛倒)’되어서는 안 된다. 부활절의 초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달걀을 주고받고 달걀을 먹느냐 마느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주어를 분명히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이다.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말이 되냐고 말한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다. 부활의 사건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가 석가탄신일을 최대 경축일로 삼고 있듯이 기독교는 성탄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한다. 기독교에는 ‘성탄절’ 외에도 ‘대림절’, ‘주현절’, ‘사순절’, ‘오순절’ 등 다양한 절기가 있지만 ‘부활절’이야말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중요한 사건이

지만 그 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생각하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삼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이야말로 기독교의 최대 경축일인 것이다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데 사실 그 날은 성경이나 초대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AD 354년에 편찬된 **“필로칼루스(Philocalus)의 연대기”**에 나온 내용이 있는데 **“정월의 제 8일째 전날(12월 25일)에 그리스도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이다. 이것을 연유하여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하신 날로 정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부활절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해진다.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지켰던 안식일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함께 모여 성만찬을 하였고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나누었다. 부활의 사건을 통해 주어진 감격을 기념하기 위해 매주일 **‘안식 후 첫날’**을 작은 부활로 지키게 되었고 그것이 주일 오전 예배의 전통이 된 것이다.¹⁾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중 45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묻는데 그 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써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런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중**


교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서 기독교가 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고 매주일 예배를 드리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답을 준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게 새롭게 살 수 있는 시간을 덤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한 은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합당한 자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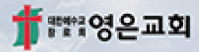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래 전 사건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재도 유효하며 장차 그리스도인의 미래에 재현될 사건이다. 그러니 매년 오는 부활절이라는 생각이 아닌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고백하는 부활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부활절은 부활절의 의미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한다. 

1) 『그것은 이것입니다』, 정장복,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166쪽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눅 24:48)

I
am
a
witness



▶ 교회를 섬기는 분들

원로목사 허남기
담임목사 이승구
부목사 최광주 이준희 이에리아 박대원 정성훈
한진구 구용회 신요한
교육목사 김민식(청년부) 이찬양(청년부/찬양)
전도사 장미애 전수현
교육전도사 나진희 박선민 황금성 조화평 정혜빈 김영락
김찬영 김희창
협동목사 종현덕 소병찬 김규리
선교협력목사 빅터 콕쿠 아데비

▶ 영은교회 예배시간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본당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4부 오후 1:30	
오후예배	오후 3:30	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본당
금요심야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본당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1층 영아부실
유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소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꿈자람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2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고등부	주일 오전 9: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제자학교	주일 오전 10: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청년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 영은교회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은교회

www.youngeun.or.kr

월간동행 e-mail : yemagazine@naver.com